



謹
賀
新
年

“최고의 종합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자”



밝고 희망에 찬 2006년이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방재와 보험』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05년에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황우석 박사 사건, 청계천 복원, 호남지역 폭설 등 전 국민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방재 및 보험업계에도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특별법’ 마련 및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설치 의무화, 퇴직연금제

도 실시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화보협회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2005년은 뜻 깊은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11월 9일 “제43주년 소방의 날”에 민간기관으로서 는 역대 최초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미국소방기술사와의 협약에 따라 ‘SFPE방화공학 핸드북’을 번역·발간하여 선진 방재기술 자료의 보급에 앞장섰으며, 특별점검 및 세미나 등을 통해 풍수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국내 최고의 방재교육기관을 위해서 올 봄 개관을 목표로 방재시험연구원 부지에 교육관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새로이 맞이하는 2006년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확한 변화 예측과 그에 맞는 창조적이고 자발적인 혁신 추구, 끊임없는 기술개발 등을 통해 범정방재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73년 창립 이래 우리 협회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격랑의 파고를 넘어온 자





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산꼭대기나 섬에 위치한 특수건물을 화재안전점검하기 위해 수 십리 길도 마다 않고 전국 구석구석까지 달려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방재기술을 전파하고자 밤늦도록 공부하는 우리 직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머지않아 화재뿐 아니라 붕괴, 폭발, 풍·수재 위협을 아우르는 최고의 종합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날아가는 새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표지향점을 향해 한 번의 날갯짓으로도 십리를 앞서 나갈 수 있는 강한 응집력과 과감한 추진력입니다. 2006년 새해를 여는 이 시점에서 우리 협회는 의지와 사명을 다지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첫째는 “재난관리전문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한 역량 강화”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기술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재난관리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에 직원 개개인이 전문적 식견과 기술을 갖추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특수위험시설에 대한 위험관리 강화로 손해율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또는 집중호우가 빈발하여 막대한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재난예방대책을 개발·보급하여 작년에 이어 더욱 적극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방재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및 방재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 부설 방재시험연구원의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을 통해 각종 선진기술을 지속적으로 산업체에 이전하고, 현재 연구원 내에 신축중인 교육관을 적극 활용하여 방재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생생한 현장 실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아울러 '73년에 창간되어 우리 협회와 함께 지난 30여년의 역사를 가진 『방재와 보험』 역시 양질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방재 및 보험 분야의 대표적인 정보지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방재와 보험』 애독자 여러분!

과거를 후회하는 사람,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한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쉬워하고 한탄하다보면 마음은 말라버린 썩과 같아지고, 몸은 가랑잎같이 쇠잔해질 것입니다.

닥쳐올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 또한 문제 해결에 지장을 줄 뿐입니다. 미래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에 두려워하기 보다는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협회 역시 과거를 반성과 깨달음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꿈과 희망의 장으로 여겨,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2006년을 시작하려 합니다.

『방재와 보험』 독자 여러분 역시 자신을 낮은 곳으로 이끄는 힘을 거부하고 목표를 설정하여 새롭고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새해 아침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

곽정훈

